

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높았다



“고생했어, 우리 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광주시 남구 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마중 나온 어머니들이 딸을 안아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24 수능, 국어·수학 영역 까다롭고 영어는 9월 모평과 비슷 사고력 측정에 체감 난도 상승 ...정시에 강한 재수생 강세 예상

‘킬러문항’이 배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수능)에서 국어·수학 영역이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기사 6·7면> 올해는 수능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운영해 킬러문항을 걸러냈으나 작년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난도가 높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사고력을 측정하는 변별력 높은 문제들이 다수 출제됐다는 것이다.

EBS평가단과 입시전문가들은 16일 치러진 수능에서 “국어·수학 영역의 경우 킬러문항이 사라졌으나 문항자체의 난도가 오른 탓에 수험생들에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BS평가단은 국어영역에 대해 “9월 모의평가보다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며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은 빠져 있지만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선지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영어 영역에서는 지난해 수능과 문항 배치가 유사해 수험생들에게 낯설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EBS평가단은 “충실하게 지문을 읽고 선택지를 분석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다수 배치해 지난해 수능에 비해 다소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배제됐다

는 것이다. 수학 영역의 경우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EBS 대표 강사인 심주석 인턴 하늬고 교사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에서 변별력을 유지하도록 출제됐다”면서도 “최상위권엔 작년 수능과 9월 모의평가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만점자가 2520명 나온 점을 감안해 이번 수능에서는 최상위권을 가르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종로학원은 “수학 공통과목은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고 미적분, 기하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면서 “최상위권을 가능하는 문제는 더 어렵게 출제됐다”고 해석했다.

이번 수능 출제진은 EBS 연계율은 각 과목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유지해 연계 체감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각 영역 EBS 교재인 ‘수능특강’, ‘수능완성’에서 문제를 추출해 변형하거나 지문 등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출

제했고, 핵심적인 내용은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방식을 바꿔 출제했다”면서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에서는 N수생 강세가 점쳐지고 있다. 올해 졸업생 응시자는 15만9742명으로 31.7%를 기록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통틀어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국어와 수학 모두 변별력있게 출제돼 정시에 상대적으로 강한 재수생 강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사회교육

과 교수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출제했고, 핵심적인 내용은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방식을 바꾸어 출제했다”면서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20일까지 평가원 누리집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수능 문제와 답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기관처럼 105%로 완화

당정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조치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돼 온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 회를 열어 이같은 조치가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 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의장은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 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기존 개 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 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 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었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첫 눈이 와요 ❄️

아침 영하권... 1~5cm 쌓일 듯

18일 새벽 광주·전남지역에 올해 첫 눈이 내리 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8일 광주·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16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들이 비교적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발생한 해기차로 인해서 해상에 눈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첫 눈이 내리겠 다고 분석했다. 17일 자정을 전후로 18일 아침 사이 광주와 전남 북부에 1~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내 다봤다.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 겠다. 17일 새벽부터 18일 오전 사이 광주·전남에 는 5~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이 동반돼 체감온도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17일 오전 서해남부앞바다에 풍랑예비특보가 발 령되고, 오후부터는 남해서부 앞바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전남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이 초속 20m(산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이에 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 에는 17일 오전 강풍예비특보가 내려지고, 오후에 는 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완도·에가 지 강한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의 17일 낮 최고기온은 8~11도로 평 년(낮최고기온 13~16도)보다 5도 이상 낮은 기온 을 보이며 출겠고, 18일에는 아침최저기온 영하1 ~5도, 낮최고기온은 9~12도에 분포하겠다. 휴일 인 19일에는 광주·전남 전 지역에 눈과 비가 그치 고, 구름이 많거나 맑겠다. 최저기온은 2~8도수준 을 보이고, 낮최고기온은 15~17도를 보여 평년기 온을 회복하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내린 눈이 쌓이거 나,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 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나주호·약산호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 추진 ▶8면

복스 - ‘로마사를 움직이는 12가지 힘’ ▶14·15면

KIA 오키나와 캠프 - 포수 무한경쟁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마음을 함께하는 행복한 이음

내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더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등 내 고향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기부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 아닌 전라남도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 온라인 기부 또는 금융기관(농협) 창구 대면 기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혜택** 기부액의 30% 내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 쌀, 여수갯김치, 영광 굴비, 나주배, 강진 청자, 천연염색체험 등(200여개)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